

고창군, 조직개편...업무 효율성 중점

신활력경제정책관·허가팀 신설 경제살리기·원스톱 민원처리 에너지팀, 신재생에너지 업무

고창군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실현하고자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현행 군 행정기구는 2국15과, 1담당관, 1의회, 2직속(2과), 3사업소이며 개편 예정인 행정기구 구성은 2실1정책관1과, 1의회, 2국13과, 1의회, 2직속(4과), 2사업소이며 시행 시점에 맞춰 부서명도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명칭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군정 목표 실현을 위한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에 중점을 뒀다.

'고루 잘 사는 풍요로운 농어촌' 건설을 위한 농업정책과 및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위한 신활력경제정책관, 건설도시과 ▲ '천혜의 자연환경, 누리고 즐기는 문화관광 1번지'를 위한 관광

산업과와 문화예술과 ▲ '안전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과 ▲ '존중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군민'을 위한 행정지원과가 배치된다.

또 대민업무 지원 강화와 업무 추진력 확보를 위해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예산실'과 '종합민원실', '신활력경제정책관', '행정지원과'를 배치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군민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종합민원실의 부서장을 기존 5급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격시켰고, 종합민원실 내에 '허가팀'을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갖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활력 넘치는 고창'을 책임지는 '신활력경제정책관'으로 부서 내에 '미래전략팀'을 신설, 향후 노을대교 대전환 업무와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인구 10만 늘리기 등의 현안



심덕섭 고창군수

사업을 맡긴다.

또 해상풍력과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팀'이 신설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일자리팀', '소상공인육성팀'을 배치하고 '청년창업팀'을 통해 청년들이 고창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기존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관광분야를 확대·분리해 '관광산업과'를 신설하고 '세계문화유산팀', '세계자연유산팀'을 배치해 세계유산도시 업무를 관광산업과로 일원화한다.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해양수산과'도 기존 농어민지원사업 외에 사업기획·정책발굴 업무를 대폭 보강했다.

특히 지역 농촌의 최대문제인 농촌인력부족 대응을 위한 '농촌인력팀'을 만들어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부의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고려하고 민선 8기 고창군 핵심프로젝트와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해 인력을 보강했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월세 지원

1년간 월 최대 20만원까지

고창군이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고창군은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 청년 중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부모를 포함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월세 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준비해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올 상반기 발생한 이자 전액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대학교 재(휴)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7년 이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다.

지원금액은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 중 2022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생활비 대출이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신청 방

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정읍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재(휴)학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서류의 적합 여부와 재학 및 졸업 여부, 대출 정보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20년 100명(250건), 2021년 62명(120건)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7월~12월분은 내년 상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한사랑사회적협동조합 지정

고창군이 관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했다.

고창군은 한사랑사회적협동조합 고창군지부를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이로써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창군장애인복지관 1곳에서 2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총 4억8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장애인에겐 의미있는 시간을, 가족에게는 돌

봄부담을 경감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2곳으로 늘어나면서 언어치료 등 성장기 발달장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조기 치료가 더욱 용이해 졌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을 일이다.

서비스 희망자는 연중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돌봄 문제가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다 함께 돌본다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추억이 담긴 한복 새롭게 리폼해 보세요

남원시 '한복 무한대...' 프로그램

남원시는 한복 리폼프로그램 '한복의 기억 새로운 ∞ (무한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과 한복문화를 연계한 '2022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억이 담긴 한복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반려동물 한복', '자락치마', '손목 파우치', '카드지갑' 중 1가지 품목을 선택해 리폼 전문가와 함께 디자인을 결정하고, 리폼전문가의 사전 작업을 거쳐 신청자가 참여하는 순서로 마무리된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네이버폼 링크 또는 화인당 블로그를 통해 1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2022년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은 문



고운 한복차림의 한 가족이 사진작가와 함께 화인당 한복스튜디오를 찾아 가족사진을 찍고 있다.

화체육관광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복진흥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되며 남원시 프로그램은 한복문화주간(10월17일~10월23일)에 맞춰 남원

에촌 일원과 남원다움관·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전북교육청 '위기 학생 긴급 지원단' 운영

전문상담사 등 26명으로 구성

전북교육청이 위기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시스템인 '위기 긴급 지원단' (이하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지원단은 기존 도 교육청 위기 지원팀과 지역교

육지원청 전문 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등 위기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투입돼 피해 학생 특별 상담과 심리검사,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생명 존중 교육 운영 등을 돕는다.

지원단 운영에는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담과 대응 인력이 부족한 군 단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키우고 예방과 진단, 치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용보험 | AIG | 하나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